

강진수협 이번엔 '수당 황령' 내홍

백서발간추진위 "상무·총무과장이 부풀려 수천만원 부당 수령"

직원들 "파면" 요구에 당사자를 "감사결과 기다려야"

부당대출 혐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강진수협이 수당 황령 사건을 놓고 직원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27일 강진수협에 따르면 수협내 임시 위원회인 「백서발간추진위원회」가 최근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노무관리책임자인 정모(55) 상무와 이모(여·39) 총무과장 등이 각종 수당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황령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

백서발간 추진위는 지난 2008년과 2009년도 급여 지급사항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정 상무가 직급수당·직무수당·시간외수당·업무수당 등 7개 수당에 대해 3175만원, 이 과장이 본봉과 출장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748만 원을 초과 수령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2급 이하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휴일 근무수당」을 1급간부인 정 상무가 2년 동안 757만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백서발간 추진위는 2007~2008년 부당대출 등 혐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투명성 확보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올해 초 이사 6명으로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위가 수당황령 의혹을 제기하자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넘는 14명도 정 상무와 이 과장의 파면조치 또는 징계면지 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협중앙회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였지만 걸치레 조사에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상무는 "수협중앙회의 최종 감사결과를 기다려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면서도 "이사와 감사 등 지난해 임원회의 식대와 회의수당 등으로 5940만원이 과다 지출한 것도 문제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백서발간추진위원회인 이사 김모씨(49)는 "지금까지 조합경영상태의 부실에 대해 내부감사 역할이 제 기능을 못했다"며 "철저한 감사책임제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며 수협중앙회의 특별감사가 이를 시일에 매듭지어져 정상적인 수협 업무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화순 개미산 정상에

'만세대 폭포' 통수식

화순은 강정리 개미산 정상에 인공폭포가 조성됐다.

화순군은 최근 도민체전 개막에 맞춰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 인근 화순천변에서 「만세대 폭포」 통수식을 가졌다.

화순군은 2억여원을 들어 수중모터를 이용해 화순천 물을 개미산 정상까지 끌어올린 후 이를 자유롭게 헤엄친다.

폭포 물줄기는 상부에서 폭 1m 한 줄기로 내려오다 중간 바위에서 좌우 두 갈래로 나뉘어 하단부는 폭 15m 넓이로 낙하하게 된다. 낙하한 물은 다시 인근 화순천으로 흘러들어가게 설계됐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인근에 위치한 개미산은 1919년 화순군민들이 독립 만세운동을 펼친 역사적인 장소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개미산 '만세대 폭포'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및 나드리 노인복지관과 어우러져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거주주민 대상
무료 건강검진
내장 산 백암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 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소장 정석환)는 최근 장성병원 건강검진센터와 함께 공원인근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건강검진 서비스는 흉부 x-선 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한 폴리스테롤·당뇨·간기능 측정 등을 실시했다.

특히 혈자 병원에 가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공원 인근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차량지원을 통해 검진장소까지의 이동을 도왔다.

정석환 백암사무소장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윤호기자

'장흥 표고 주식회사' 설립 짠결음

농민·유통업 관계자 등 참석 사업 설명회

장흥 표고버섯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장흥군 군민회관에서 이명희 장흥군수와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비롯해 표고버섯 생산 농민, 가공·유통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고버섯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 차장은 또 표고버섯 유통의 80~90%가 기존 공판장을 통해 이뤄지다 보니 ▲농협 출하에 따라

른 수수료 부담 ▲입찰 상인의 가격 담합 용이 ▲안정적 농가소득 저해 ▲농가의 선별능력 부족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에 따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입산물의 경영구조 개편을 위해 생산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장흥표고 주식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유통구조 단순화와 수급조절이 가능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

강진산 '수국' 日 본격 수출

12월까지 10만본 수출 양해각서 체결

강진산 절화 수국(水菊)의 일본 수출길이 열렸다. 강진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대표 양교일)은 지난 26일 일본의 절화류 유통 전문업체인 애그리플로우(AGRI-FLOW·대표 모타니 히데타카)와 절화수국(水菊)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수출양해각서 체결식을 통해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과 AGRIFLOW, 국제 F&O와 강진군은 오는 12월까지 10만본(4억 원)의 수출입과 신용장 개설, 행정지원 등에 합의했다.

강진산 수국의 해외시장 진출은 지난 2005년 재배를 시작한지 5년만의 성과이다.

강진은 지난 2007년 지역특성화사업 재배단지 조



성을 시작으로 매년 재배면적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이재신 연구사의 기술연구 및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과 생산력 보급은 물론 국내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는 한국 수국 일번지로 자리 잡았다.

양교일 그린화훼 대표는 "일본이 원산지인 수국이 강진에서 생산돼 일본으로 수출된다면 이것이 자랑스럽기만 하다"며 "공동출하와 선별로 품질구역화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국생산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남성성기능강화제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 폭발이 지 같은 펩타이드입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기대하다가 살피는 큰놈을 보기도 흥신사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장 없던 반신반의 판매 사용해 봤더니 그 신기함에 꽤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알 수 있었던 능하다는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저마다 알 수 있었던 점과 때문에 불티나게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